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 연구

김 정 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박사과정)

문 혁 준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을 조사하기 위함으로, 배경변인,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떠한 관련과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5세아와 어머니 각각 186명이었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LaFrenier와 Dumas(1996)의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평정 간편형을 번역한 권연희와 박경자(2002)의 척도를 사용했으며, 어머니 역할만족도는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를 질문지로 사용했고, 어머니 양육행동은 Crase, Clark와 Pease(1978)의 양육행동척도를 수정한 손승희(2002)의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통해 측정했다. 자료 분석은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의 T-검정, 상관관계, 부분 상관관계, 그리고 다중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의 성별, 건강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과 연관이 있었으며, 배우자의 지지만족도가 높고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아동의 분노·공격적 행동이 낮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고, 긍정·친사회적 행동은 온정·합리적일수록, 반응을 적게 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한계설정이 높을수록 불안·위축행동이 줄어들었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전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자녀 관계만족도, 부모역할갈등, 온정·합리적 지도 그리고 배우자 지지만족도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온정·합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 역할만족도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한 시사점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부모자녀 관계만족도와 부모역할 갈등, 배우자의 지지만족도 그리고 온정·합리적 양육행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고 부모역할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과 교육, 그리고 보다 온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다.